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광주 - 동함평IC 구간 왕복 통행료 환불
우천시 9홀 이후 홀별요금정산제 실시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광주 김달은 한국新 역영

대통령배 전국 수영 여자 일반 평영 50m 31초86 기록

광주대표 김달은(HI 코리아·사진)이 제27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서 금빛물살을 가르며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김달은은 1일 전북 완산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 평영 50m에서 31초86으로 2위 변혜영(안양시청)을 제치고 금빛 역영을 펼쳤다.

특히 김달은은 정슬기(연세대·현 국가대표)가 올해 3월 제주에서 열린 제주한라배 전국수영대회에서 작성했던 32초15 기록을

깨뜨리며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여수 출신인 김달은은 여수 부영여고 재학 중이던 지난해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여자부 혼계영 400m, 계영 400m에서 금메달 2개, 자유형 50m, 계영 800m 은메달 2개, 자유형 100m에서 동메달1개를 따내는 등 한국 수영을 이끌 꿈나무로 각광받아 왔다.

고교 졸업 후 올해 광주광역시 특별지원 선수로 HI코리아에 입단한 김달은은 안종택 코치와 함께 동계훈련 동안 지구력, 유연성, 스피드를 보완해 이날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특히 김달은은 김고은(HI코리아) 선수와 쌍둥이 자매로 오는 10월 열리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퍼레이드를 기대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목포여상배구 대회 2연패

세화여고 꺾고 대통령배 우승

춘계대회 이어 올 시즌 2관왕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가 제41회 대통령배 전국남녀배구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목포여상은 1일 충북 옥천체육관에서 열린 여고부 결승전에서 서울 세화여고를 세트스코어 3-0으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특히 목포여상은 이번대회 예선 1회전에서 남성여고에게 3-0으로 승리한 후 잇따라 포항여고 3-0, 울산 삼산고를 3-0으로 누르는 등 한 수위의 기량을 선보이며 준결승에 올라 서울 일신여상을 역시 3-0으로 제압했다. 파죽의 기세로 결승에 오른 목포여상은 결승에서도 서울 세화여고를 3-0으로 제압하는등 무실세트 우승을 일궈 전국최강의 전력을 자랑했다.

평균신장 175㎝로 장신은 아니지만 강한 서브가 주 득점원인 목포여상은 1세트에서는 서브 실수로 인해 4점차로 뒤지는 등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문슬기(1년)가 19-23으로 패색이 짙던 상황에서 4개의 강서브로 세화여고를 흔들어 26-24로 역전에 성공했다.

1세트에서 역전승한 목포여상은 2세트에서 서브가 살아나면서 지난해 최연소 국가대표에 뽑혔던 세터 염혜선(3년)의 컴퓨터 볼배급에 이은 좌·우 오픈공격이 주효해 25-18로 승리했다.

팀 조직력이 살아나기 시작한 목포여상은 3세트에서도 레프트 문슬기와 라이트 김주영(3년)의 오픈공격에 센터 김지혜(3년)의 빠른 공격으로 25-17로 승리해 우승을 확정지었다. 지난해 대통령배와 CBS배 우승으로 2관왕에 올랐던 목포여상은 올 3월 춘계배구대회 우승에 이어 2관왕에 올랐으며 오는 9월 CBS배와 10월 전국체전 우승을 노리고 있어 4관왕을 기대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양산중 한아름 2관왕

전국 시·도학생 역도

한아름(양산중 2년)이 제3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학생역도경기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한아름은 1일 강원도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여중부 75㎏급 이상 용상에서 80㎏을 들어올려 금메달, 인상에서 53㎏으로 은메달, 합계 133㎏으로 금메달을 따내 2관왕에 올랐다.

이종희(보성군청)도 이날 남자일반 85㎏급 인상에서 155㎏을 들어올려 금메달, 용상에서 190㎏으로 은메달, 합계 345㎏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손원진(조선대 1년)은 남자대학부 94㎏급 인상, 용상, 합계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이종희는 전 국가대표(2001~2004년)선수로 활동하던 중 부상으로 운동을 중단하면서 보성군청에 입단, 예전기량을 회복하고 있어 오는 89회 전국체육대회 입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동성중 선수들이 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벌어진 제 2회 KIA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 결승에서 무등중을 5-2로 꺾고 우승을 확정한 뒤 강대성 감독을 헹가래 치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광주 동성중 "우리가 호남 야구왕"

KIA 타이거즈기 야구 우승

광주 동성중(감독 강대성)이 제 2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동성중은 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광주 무등중학교와의 대회 결승전에서 안정된 마운드를 발판으로 5-2로 승리해 우승컵을 안았다.

이날 동성중의 문의서는 3-2로 팀이 앞서고 있던 4회 선발 조영준에 이어 마운드에 올라 3과 3분의 1이닝 동안 무안타 5탈삼진 무실점으로 팀 점수를 지켜내며 승리투수가 됐다.

동성중 타선은 2루타 2개를 포함한 6안타로 5점을 뽑아내며 팀 우승을 이끌었다.

A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한 무등중은 B조 2위 군산중을 5-4로 꺾고 결승에 선착했고, A조 2위 동성중은 B조 1위 충장중을 2-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었다.

한편 아마 야구 육성을 위해 마련된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는 지난달 23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개막, 광주·전남·북지역의 10개 학교가 우승을 놓고 각축을 벌였다.

◇개인상

▲최우수선수상 : 문의서 ▲우수투수상 : 김원중(이상 동성중) ▲타격상 : 정경운(충장중) ▲최다안타상 : 김성욱(충장중) ▲최다홈런상 : 장진혁(충장중) ▲최다도루상 : 김성욱(충장중) ▲최다타점상 : 김성욱(충장중) ▲수훈상 : 이진호(동성중) ▲감투상 : 김준석(무등중) ▲미기상 : 박정섭(무등중)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US여자오픈 출전➡어제 귀국➡오늘 KLPGA 참가

'지존' 신지애 '바쁘다 바빠'

MBC투어 레이크사이드 출전

"3개 대회를 쉰다더니…"

제63회 US여자오픈골프대회에 출전했던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사진)가 당초 일정을 앞당겨 2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파72·6천533야드)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MBC투어 레이크사이드 여자오픈에 출전한다.

지난달 15일 BC카드클래식에서 우승하며 시즌 4승을 수확한 신지애는 당시 US여자오픈 준비와 출전 때문에 국내 3개 대회에 출전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애는 그동안 국내 2개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레이크사이드 오픈참가를 통보했다.

신지애는 작년에도 US여자오픈을 끝내고 들어오자마자 출전한 MBC투어 코리아골프 아트빌리지 오픈에서 공동 5위에 오른 적이 있다.

US여자오픈에서 공동 19위에 머물러 썩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낸 신지애가 국내 팬들에게 우승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1일 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2일 오전 9시51분에 대회 1라운드를 시작해야 하는 신지애가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지는 미지수. 휴식 시간이 거의 없는데다 연습라운드나 프로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어 코스 파악조차 힘든 상황이다.

여기다 신지애를 추격하는 신예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지난 주 롯데마트 행복드림컵 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올린 최혜용(18·LIG)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최혜용과 불꽃튀는 신인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소연(18·하이마트)도 시즌 두번째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샷을 가다듬고 있다.

또한 2승을 거둔 김하늘(20·코오롱)도 지친 '지존'을 넘어 다승왕을 노리고 있어 우승컵의 향방을 쉽게 점칠 수 없다.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대회 관계자의 질문에 "내가 대회에 안 나갔으면 좋겠냐"며 받아넘긴 신지애는 "하루만 쉬면 금방 좋아진다"며 상반기 마지막 대회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대회는 MBC ESPN과 J골프가 1라운드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MBC가 2~3라운드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중계한다.

함평다이너스티CC 7·8월 운영 이렇게…

반바지 입고 라운딩 가능

티 오프·휴장시간 변경

4계절 양잔디 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CC가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잔디보호를 위해 이달 1일부터 8월까지 티 오프시간과 휴장시간을 변경한다.

이달 1부 티오프는 주중 오전 7시30분~9시 29분, 2부 오후 1시~2시59분이며 주말 오전 6시23분~8시36분, 2부는 오후 12시6분~2시19분이다.

8월 1부 티오프는 주중 오전7시~2시56분이며 주말은 오전 6시 10분~8시30분, 2부 12시~2시13분까지다. 7~8월까지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또한 함평다이너스티CC는 악천후에 따른 플레이를 임의로 중단할 때 1~2홀에서 종료시 그린피를 내지 않아도 되고, 3홀 티샷부터는 9홀 요금을 적용한다. 또 10홀부터는 각 홀별 요금 정산을 한다.

이외에 7월 1일~ 8월 31일까지 반바지 착용과 자율복장 라운드가 가능하다. 하지만 목 옷깃이 없는 반팔 티셔츠는 착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함평다이너스티CC는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완전 개통 기념으로 왕복 통행료 환불 이벤트를 실시, 내장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다이너스티CC는 내장객이 광주~무안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당일 광주~동함평IC 이용 영수증)을 프런트에 제시하면 왕복통행료를 환불해 주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US여자오픈 우승 박인비 세계랭킹 12위…30계단⬆

여자프로골프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을 제패한 박인비(20·사진)의 세계랭킹이 대폭 상승했다.

박인비는 1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총점 227.69점으로 지난주보다 30계단이 오른 12위에 자리했다.

한국선수 중에는 장정(28·기업은행)이 295.97로 8위에 올라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했고 신지애(20·하이마트)가 9위(277.33점)로 뒤를 이었다.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부동의 1위(953.50점)를 지켰고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2위(455.65점)에 올랐다.

타격폼 바꾸고 자신감 찾았다

이승엽 1군 복귀 눈앞

타격 난조로 2군에 내려간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사진)이 자신감을 완전히 되찾았다.

요미우리 계열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호치는 1일자 '부상도 나았고, 자신감도 되찾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승엽의 자신감에 찬 모습과 함께 1군 복귀 가능성을 짚었다.

4~5월 내내 타격폼 수정 작업에 매달린 건 이 때문이었다. 그 결과 지난달 19일 2군 리그 니혼햄전에서 장외 홈런을 2방이나 날렸다.

이승엽은 이 때만 해도 "아직 멀었다. 60% 정도 회복됐을 뿐"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이승엽은 이제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상 재발 걱정도 사라졌고, 타격 폼도 완전히 달라졌다. 타격 전 양발 간격을 극단적으로 좁히는 식으로 자세를 바꾼 덕에 몸통을 회전축으로 삼아 풀스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승엽은 "풀스윙을 할 수 있게 됐고 타격 자세도 생각대로 고쳐졌다"고 말했다.

구단도 합격점을 줬다. 요시무라 사다아키 2군 감독은 "2군에 내려왔을 때와 비교하면 아주 좋아졌다.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스포츠전문지 스포니치는 1군 수뇌부의 이승엽 복귀 시나리오를 전했다.

"US오픈 결과 관계없이 올 시즌 마감하려 했다"

우즈 무릎 수술 후 밝혀

"US오픈골프대회에서 컷 탈락을 하든, 우승을 하든 시즌을 접을 계획이었다."

지난달 17일(이하 한국시간)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US오픈에서 연장전 우승을 차지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1일 무릎 수술을 받은 뒤 처음으로 AP통신, 로이터통신 등과 가진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즈는 "지난 10년간 무릎이 아팠고 US오픈을 앞두고 충분한 연습도 하지 못했다"면서 "US오픈이 올해 마지막대회라고 생각하고 출전을 강행했다"고 털어 놓았다.

우즈는 왼쪽 무릎 수술 뒤 깁스를 하고 있으며 다리에 체중이 실리지 않기 위해 3주 동안 목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일 개막하는 PGA 투어 AT&T내셔널의 주최자이기도 한 우즈는 비행기 여행이 좋지 않다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시상자로서도 대회장에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